



아이들의 웃음이 싱그럽죠?

필리핀 수빅에서 살고 있는 메리노 아저씨네 모습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수줍게 웃는 아내와 삼남매. 그러나 메리노 아저씨의 얼굴은 조금 어둡습니다.

아이들 둘은 장애를 겪고 있고 아저씨의 몸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수빅이 필리핀의 관광지라 이름이 알려져 있지만 예전에 수빅은 태평양 최대의 미군기지가 있던 곳이지요. 메리노 아저씨는 수빅 미군기지 안의 노동자였습니다. 1966년부터 92년까지 주로 무기와 화학약품을 운반하는 일을 하였는데 약품상자가 풀어지면 손으로 약품을 옮기는 일도 자주 있었고 이때 검은 가루와 케이스에서 석면조각들이 흘러나와 흡입되곤 했었다 합니다. 아저씨는 당신의 폐질환과 아이들의 장애가 그 일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빅과 또 미 공군기지가 있던 필리핀의 클락엔 아저씨네 집과 같은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녹색아시아를 위한 만원계 [www.greenkorea.org/greenasia](http://www.greenkorea.org/greenasia)

## 필리핀 수빅 · 클락 미군기지 피해자를 위한 만원계

‘녹색아시아를 위한 만원계’는 녹색연합에서 진행하는 아시아의 환경오염피해자들과 환경운동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모금활동입니다. 아무르 표범, 네팔의 낭기마을, 인도네시아의 오랑우탄 등 여러 주제의 계모임이 만들어져 달마다 모아진 켓돈을 현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필리핀 수빅클락 미군기지 피해자를 위한 만원계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92년까지 100여 년이 넘게 필리핀에 주둔했던 미군이 그곳에 남겨놓은 상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엄청난 환경재앙은 기지가 철수한지 수년이 흐른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진행중이며, 미군기지가 있는 많은 나라에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91년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하면서 서둘러 미 공군기지가 철수되고 나자 그곳은 화산을 피해 이주한 난민들의 임시거처가 되었습니다. 천막을 치고 우물을 파 생활을 하던 난민들에게 또 다른 불행이 닥쳤습니다. 그곳에선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고열에 시달리다 죽거나 멀쩡했던 아이들과 어른들도 병을 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기지의 땅이 이미 기름과 여러 화학약품에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지는 폐쇄되었지만 그곳에서 잠시라도 살았던 이들의 자손들은 계속 백혈병과 뇌성마비 등의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해군기지가 있던 수빅의 경우엔 기지 안 노동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비슷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박 안에서 일했던 이들의 다수는 폐에서 석면이 발견되었고 폐암등의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만원계에선 필리핀에서 미군기지 피해자들을 조직하고 의료지원과 피해자들의 권리찾기를 벌이고 있는 단체인 미군기지정화위원회(사무총장 : 뮐라 발도나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정화위원회는 수 천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을 일일 만나며 기록을 만들고 적은 돈을 쪼개어 의료지원 서비스를 하고 유엔에 이 사건을 제소하기 위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군기지정화위원회에 만원계는 작지만 꾸준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참여한다면 그 약속은 조금 더 굳건해 질 것입니다.

## 필리핀 수빅 · 클락 미군기지 피해자를 위한 만원계

### 만원계에 함께 해 주세요.

당신이 달마다 내는 껌돈은 원금보다 훨씬 더 크게 부풀어  
아시아 가난한 이웃들의 희망과 꿈으로 당신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필리핀 전 미군기지 독성오염의 희생자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소중한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미국에게 미군기지를 정화하라고 압박하는 캠페인을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미군기지 만원계 홈페이지로 들어와 계원이 되시고  
달마다 은행에서 1만원 이상씩 자동이체 되도록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계모임에선 필리핀과 꾸준히 연락을 나누며 그동안의 활동소식을 전하고 돈을 송금하는 일을 합니다.  
아직은 액수가 많지 않아 송금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몇 달치를 모아 송금하는 실정입니다.  
달마다 모이는 껌돈이 많아져 정기적인 송금을 할 수 있다면 미군기지정화위원회가 더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0여 개의 미군기지가 있고 기지철수와 재배치 문제, 환경오염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에서 필리핀의 경험은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필리핀의 미군기지과 환경오염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자료와 정보를 함께 나누고 필요하시다면 달려가 자세한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필리핀 미군기지 상황을 알리는 전시용 판넬도 있습니다.  
전시를 하고 작은 모금까지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연락 주십시오.

〈필리핀 수빅·클락 미군기지 만원계 [www.greenkorea.org/greenasia](http://www.greenkorea.org/greenasia)〉

연락처 : 박경화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사는 법』 저자, 만원계의 제주. 016-711-5464 )

고이지선 (녹색연합 미군기지 담당 활동가, 만원계의 계원. [antikone@greenkorea.org](mailto:antikone@greenkorea.org) 02-747-8500)

만원계 통장 : 국민은행 512602-01-133961 예금주 : 박경화 (만원계)



### 미군의 환경 오염 맞서 10년째 투쟁

필리핀인 밀라 발라나도 씨(52)는 10여 년째 한 우물을 파고 있는 환경운동가이다. 필리핀 내 미군기지인 클락 공군 기지와 수빅 해군기지의 환경 문제를 파헤치고 있다. 10년 전, 두 지역 모두 필리핀에 반환되었지만, 석면으로 뒤범벅된 죽음의 땅으로 바뀐 뒤였다. 그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지가 반환된 뒤 두 지역에 서만 1백25명이 석면 공해로 사망했고, 수빅 지역의 한 병원에서

는 백혈병 진단 건수가 3백20건이나 보고되었다. 백혈병 환자 가운데 80%는 어린이였다. 이렇게 환경 오염이 심각해도 미국측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지난 9월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그녀는 환경권이 인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13년째 미군기지정화위원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그녀는 “백번 양보하더라도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라고 말했다. 용산 기지를 비롯한 미군 기지 반환을 앞두고 있는 녹색연합을 비롯한 국내 환경운동가들은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 시사저널 830호 ‘사람과 사람’

